

상상과 창의력을 유발하는 어린이공원 개선 전략

2009. 5. 4 제37호

김원주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천편일률적인 어린이공원
- II. 창의력을 유발하는 선진국의 어린이공원
- III.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공원
개선 전략

요 약

서울시의 어린이공원은 1200개소나 되지만 1500㎡ 이하의 소규모 공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상당수의 어린이 공원이 낙후된 시설과 천편일률적인 놀이시설로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1994년부터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관리부실로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8-13세가 38%, 14-20세가 23%, 31-40세가 16%로 구성되어 있다. 공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주로 놀이시설을, 어린이 보호자 및 노년층은 벤치 시설, 중장년층은 운동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놀이시설은 시설이 다양하지 못하고 안전성이 떨어져 만족도가 매우 낮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은 공원 내 소음·취객·애완동물에 대한 관리와 야간의 안전성, 화장실·음수대·휴지통 등 부대시설의 청소 및 위생상태 등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는 어린이의 창의력을 북돋우고 흥미를 고취하기 위해 어린이공원에 다양한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Skidders Playground*에서는 모든 자재를 재활용품으로 구성하여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유발하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Kowhai Park*는 어린이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그네, 미끄럼틀, 시소 등의 놀이기구를 전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혁신적으로 디자인하여 설치하였다. *Kowhai Park*는 지역주민과 로타리클럽, 라이온스 등 시민단체의 자원봉사 활동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성되었다. 미국의 *Vanderbilt Playground* 또한 공원 개선을 전문으로 하는 가장 큰 봉사단체인 *Prospect Park Alliance* 프로그램을 통해 조성된 사례로, 어린이들의 연령대에 맞는 복합 체험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재미와 협동성을 갖추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과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노원구의 씨알 어린이공원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리모델링된 사례로, 토지공사와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서울시도 2008년부터 어린이가 직접 설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상어린이공원 프로젝트는 2010년까지 300개소를 창의와 상상이 어우러진 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으로 있다.

어린이의 상상과 창의력을 유발하는 어린이공원은 우선 어린이가 즐겁고 안전한 공간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 및 시설물 설치, 다양한 디자인 및 소재 도입, 주기적인 이용자 평가와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설계 참여와 위해성이 없는 소재 사용, 협동성을 증진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기본요건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어린이의 동반자 및 노년층을 배려한 시설을 보강하고, 주기적인 이용자 평가와 자치구의 공원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한다.

I. 천편일률적인 어린이공원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어린이공원

□ 협소한 면적의 어린이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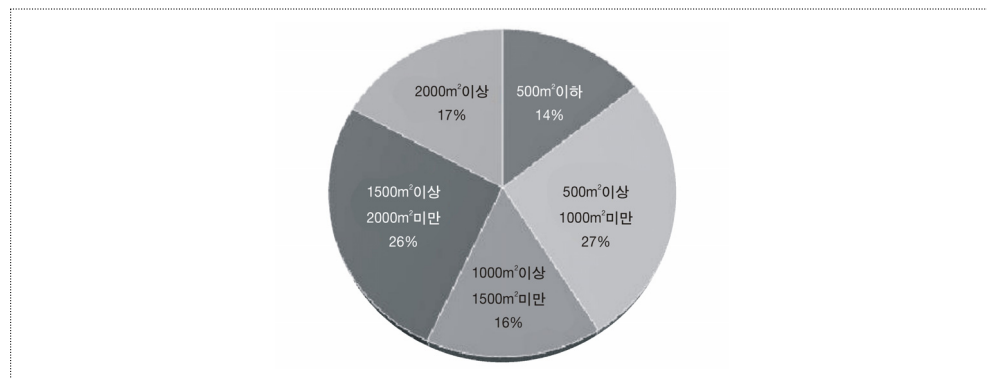
- 서울시의 도시공원은 총 1659개로 총면적은 110.43km²이지만 어린이공원은 1207개소에 1.83km²로, 수에 비해 면적이 매우 협소
- 어린이공원 면적은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1.66%에 불과

<표 1> 서울시 공원 현황

공원유형	총계	도시공원								자연공원	기타공원
		소계	도시자연 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역사공원		
공원수(개소)	2,182	1,659	20	343	1,207	78	3	5	1	1	522
면적(km ²)	166.05	110.43	66.71	38.56	1.83	0.09	0.05	3.06	0.11	39.45	16.17

출처 : 서울시 공원현황 2008

- 어린이공원은 약 2~12세의 어린이를 주이용 대상으로 하며, 유치거리 250m 이하, 설치규모는 1500m² 이상
- 서울 시내 어린이공원은 최소 11m²부터 최대 20,820m²까지 규모가 다양하며, 1500m² 이하의 작은 규모 공원이 약 57%를 차지



[그림 1] 어린이공원 조성면적

□ 겉모양에 치중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 상당수의 어린이공원이 낙후된 시설과 천편일률적인 놀이시설이라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위험한 상태
- 부지의 상당부분이 노인정,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으로 전용되고 있어 사실상 어린이를 위한 공원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역부족



[그림 2] 위험한 상태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어린이들

- 서울시는 1994년 '어린이공원 현대화 계획'을 시작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생활권 맞춤형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 시설 현대화를 통해 시설을 최신식으로 바꾸고 맞춤형으로 특이한 모양의 놀이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있으나, 관리 부실로 방치되고 이용이 저조한 실정

<표 2> 서울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경과

시 기	내 용
1994년 이전	· '어린이공원 현대화' 계획으로 22개 공원을 시범적으로 재조성 → 현재 자치구별로 시행
1995~2005년	· '푸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 등으로 명칭 변경 · 520여 개 공원의 시설정비 계획이 있었으나 시행되지 못함.
2005년 이후	· '생활권 맞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의 명칭 변경하면서 리모델링 사업 시행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공원

□ 부실한 관리로 인한 시설의 낙후성과 위험성이 증가

- 관리인력은 구별로 2명에서 10명이나 관리대상 공원 수가 많아 관리가 허술하고, 1000㎡ 이하 공원은 관리인력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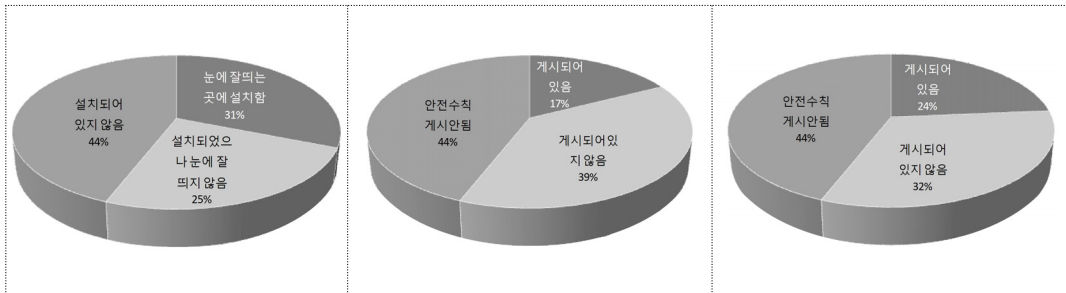
<표 3> 구별 공원관리인력 현황

	중구	용산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마포구
관리인력(명)	4	7	4	3	6	10	5	10
어린이공원 개소 수	25	30	36	24	42	39	37	53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동구	
관리인력(명)	2	3	2	3	2	2	5	
어린이공원 개소 수	71	107	28	39	20	73	53	

□ 어린이 놀이시설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증가

- 전국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는 2004년 146건, 2005년 186건, 2006년 307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추세(한국소비자원, 2008)
- 시설 안전성 측면에서 놀이기구 목재 부분의 파손이나 녹 발생이 가장 큰 문제
 - 그네 22.6%, 미끄럼틀 10.0%, 회전놀이기구 19.0%, 오르는 기구 13.6%, 정글짐 21.0%, 건너는 기구 12.1%에서 파손 및 녹 발생
 - 회전놀이기구와 정글짐의 경우, 손잡이의 페인트칠이 벗겨진 경우가 각각 23.3%, 25.2%에 상당
-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내시설 미설치 및 내용 부실로 사고에 노출. 관리주체가 표시된 49.6% 중, 별도 표시가 안 된 경우가 42.3%나 되는 상황
 - 관리주체가 표시된 49.6% 중, 연락처가 게시된 곳은 24%뿐

- 안전수칙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미설치가 44%이고, 설치한 경우도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된 곳은 31%로 낮은 실정
- 안전수칙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놀이터 사용연령이 표시되어 있는 곳은 17%에 불과



자료 :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2008, 어린이 놀이기구 시설 안전모니터링 결과

[그림 3] 안전수칙 설치

[그림 4] 사용연령 게시

[그림 5] 연락처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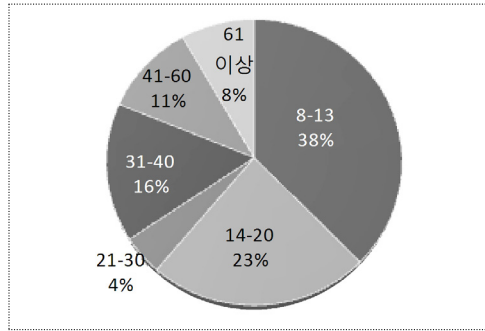
[그림 6] 2005년 재조성한 윗잔다리 어린이공원의 관리 부실 시설

어린이공원에 대한 어린이들의 희망 : 충분한 놀이시설, 안전한 바닥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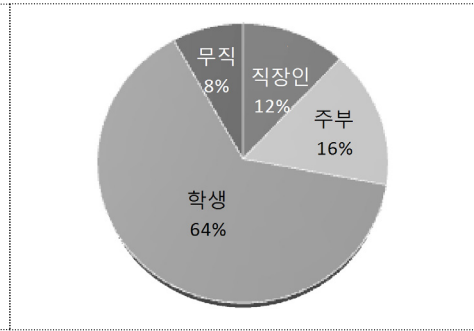
□ 어린이공원 주이용자인 8~13세의 어린이 외 연령층이 다수를 차지

- 공원 이용자의 연령분포는 8~13세가 38%로 가장 많고, 14~20세가 23%, 31~40세가 16% 정도

- 학생이 64%로 가장 많지만, 어린이 외의 공원 이용자가 다수를 차지하며 근린공원과 같은 성격으로 이용
- 어린이들에게는 외면을 받고, 지역 주민의 쉼터 성격으로 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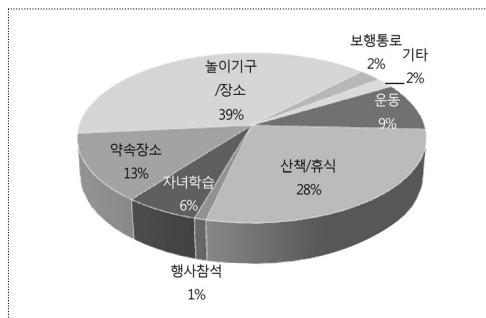


[그림 7]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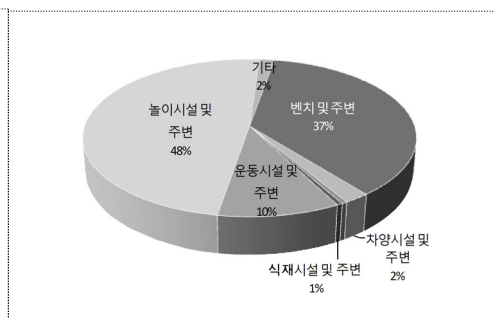


[그림 8] 직업분포

- 연령별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놀이시설 이용이 많고, 어린이 보호자 및 노년층은 벤치시설을, 중장년층은 운동시설을 주로 이용
- 공원 방문 시 주 이용시설은 '놀이시설 및 주변' 48%, '벤치 및 주변' 37%로 높은 응답
 - '놀이기구나 놀이장소' 이용이 약 39%, '산책·휴식' 목적 28%, '약속장소'로의 이용 13% 정도
 -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95%가 '놀이시설 및 주변', '벤치 및 주변', '운동시설 및 주변'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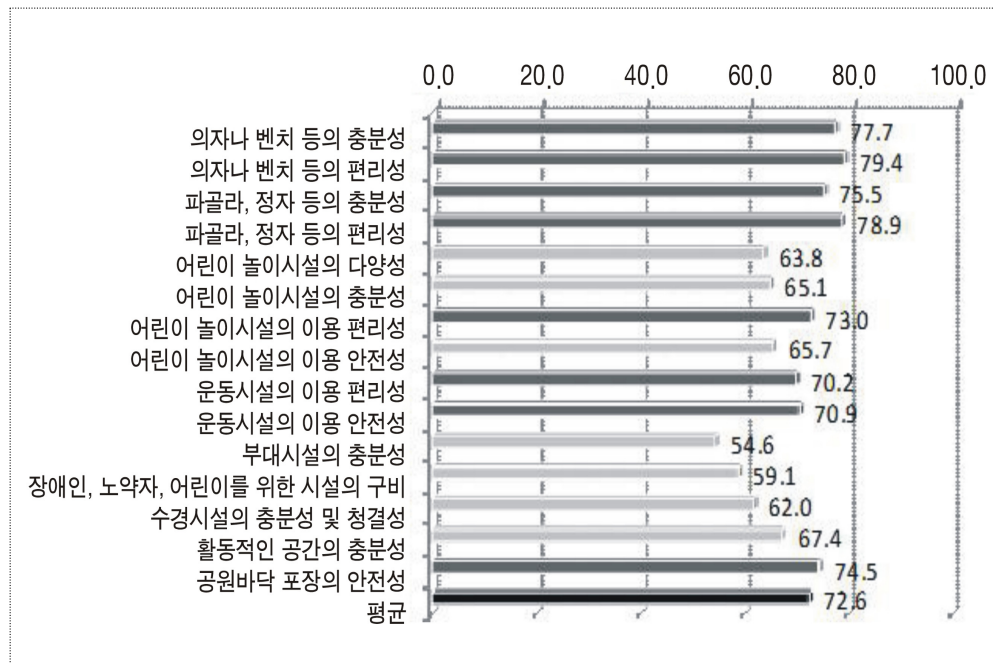
[그림 9] 이용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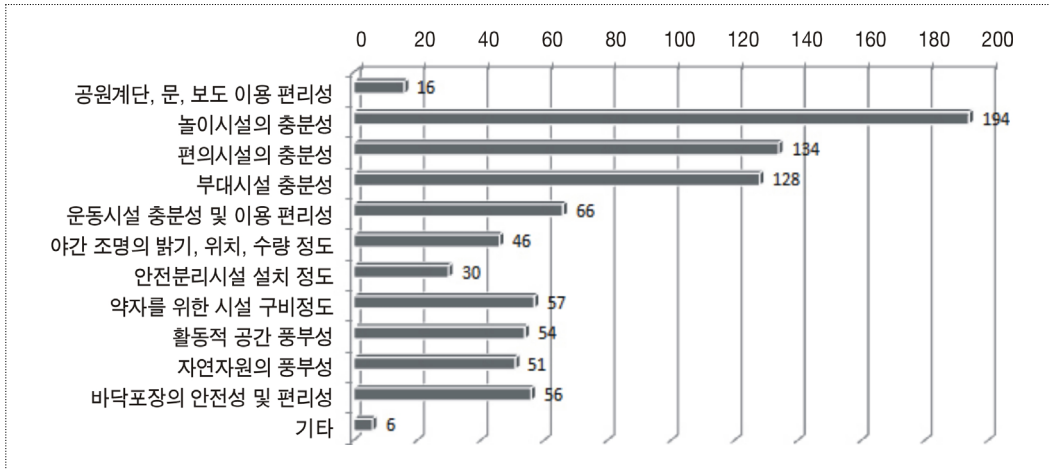
[그림 10] 이용시설

□ 이용자들은 놀이시설 보완을 가장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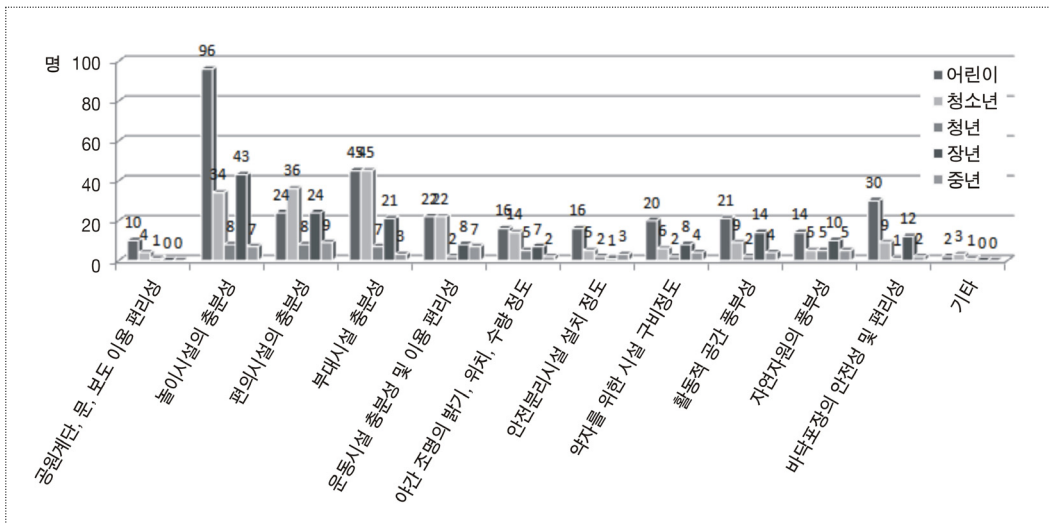
- 이용자들이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공원시설물은 놀이시설이 가장 많고, 의자·벤치 등 편의시설, 화장실·음수대·휴지통 등의 부대시설 순서
- 화장실, 음수대, 휴지통 등 부대시설과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60점 이하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상태
- 만족도가 높은 시설은 의자나 벤치, 파골라, 정자 등
- 어린이 놀이시설은 다양하지 못하고, 불충분하고,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
- 특히 어린이들은 충분한 놀이시설과 안전한 바닥포장을 가장 많이 희망



[그림 11] 시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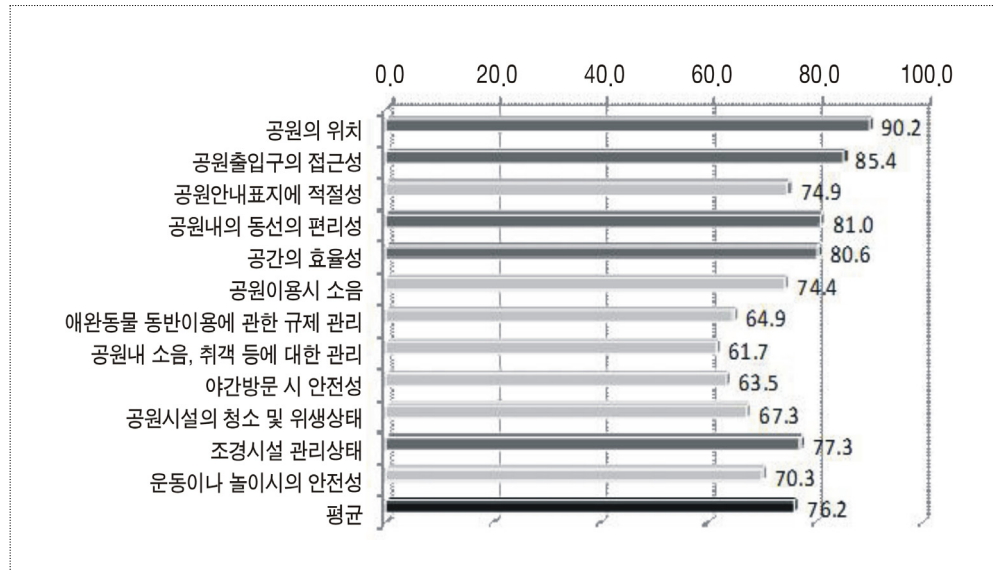


[그림 12] 시설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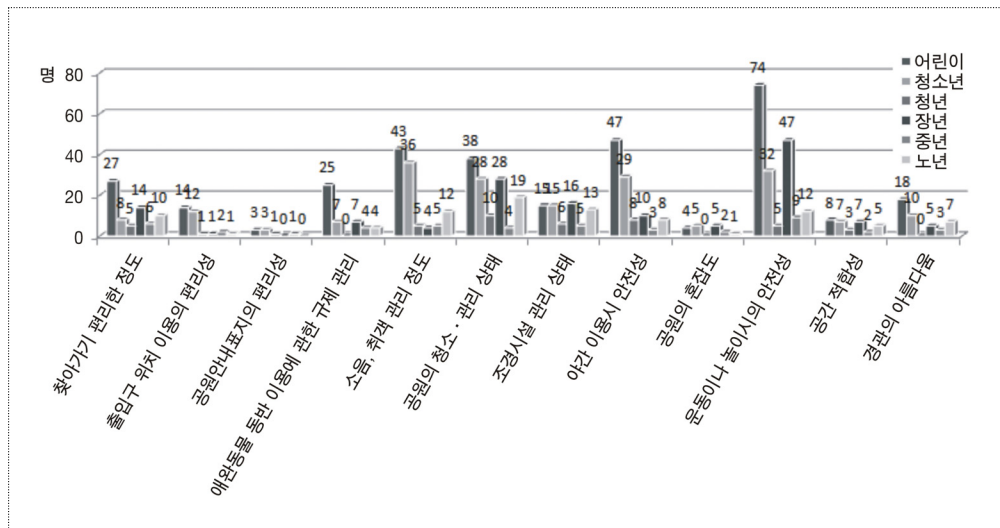
[그림 13] 연령층별 시설 선호도

- 이용자들은 관리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매우 강하게 불만
 - 이용자들은 공원 내 소음, 취객 등에 대한 관리에 대해 가장 불만
 - 그밖에 애완동물 동반이용에 관한 규제 관리, 공원 내 소음 취객에 관한 관리, 야간방문 시 안전성, 공원시설의 청소 및 위생상태 등 관리와 안전성에 대해 불만



[그림 14] 이용 만족도

-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운동이나 놀이활동의 안전성', '야간 이용의 안전성'을 이용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



[그림 15] 연령층별 이용 중요도

II. 창의력을 유발하는 선진국의 어린이공원

□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의 Skinners Playground

-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
 - 버려진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하여 아이들의 모험놀이터로 디자인
 - 창문, 바닥재, 이음새 등 거의 모든 자재는 재활용품으로 구성되었으며, 수많은 재활용 물품이나 자재를 이용하여 아이들의 상상력을 유발
 - 재활용 자재는 원래 모습 및 용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스토리텔링 소재로 활용
 - 구조물 자체는 시골 아이들이 만든 나무 위의 집이나 요새와 같은 분위기나 느낌을 제공



자료 : <http://www.thecoolhunter.com.au/architecture/Phooney-Architects--Childrens-Activity-Centre>

[그림 16] Skinners Playground

□ 뉴질랜드의 왕거누이 Kowhai Park

- Kowhai Park는 1960년대 조성 당시 시대를 앞서는 놀이기구를 설치하였고, 2005년 리모델링 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어린이공원으로 재탄생
 - 종래의 놀이터에 있는 그네, 미끄럼틀, 시소 등의 놀이기구를 전혀 다른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디자인하여 설치

- 그 어느 하나도 기존에 쉽게 볼 수 있는 미끄럼틀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다양한 미끄럼틀을 설치
- 공원 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기구는 신체적·환경적 위해가 없는 폐인트를 이용하여 밝고 뚜렷한 색채를 사용
- 공원 개선 프로젝트는 첫째 10만불(NZ\$) 예산을 들였고, 총 개선비용은 200만-300만불(NZ\$) 소요
- 조성 시 지역 주민, 로타리클럽, 라이온스 등의 시민단체의 자원봉사활동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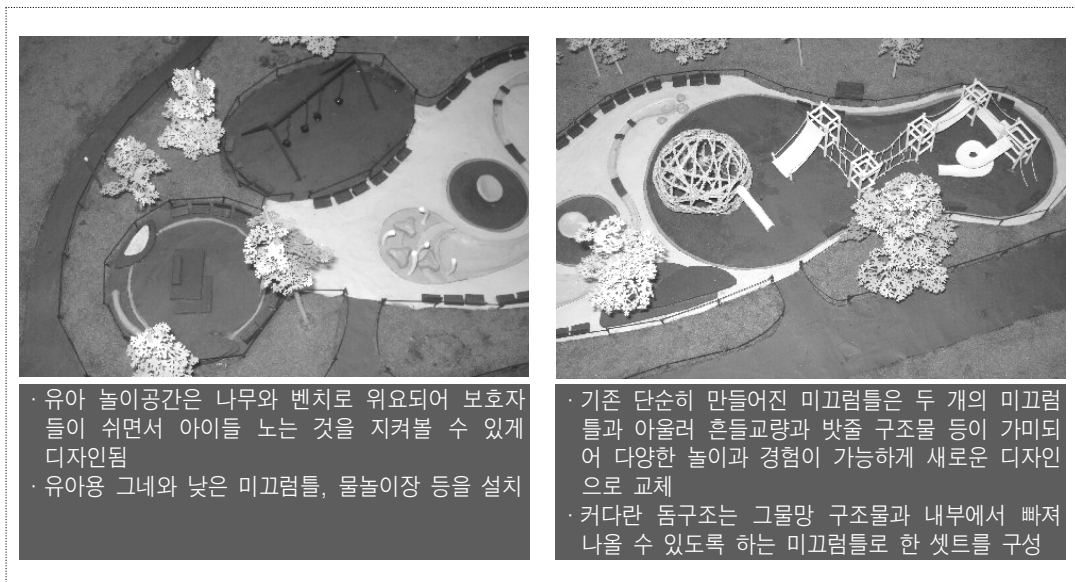


자료 : <http://inastrangeland.wordpress.com/2007/10/10/the-best-playground-in-the-world>

[그림 17] Kowhai Park의 어린이 놀이시설

□ 미국 뉴욕의 Vanderbilt Playground

- 공원 디자인에 지역주민의 견해를 반영하도록 수차례 변경 과정을 거쳐 순수 어린이 놀이터로 재단장
 - 기존 놀이터에 맞지 않는 어른용 운동기구나 바비큐 시설은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고 어린이의 연령대에 맞는 복합체험 놀이기구를 배치
- 관할 관청이 아닌 Prospect Park Alliance(PPA)라는 시민단체의 주도로 공원 새단장 사업을 추진
 - PPA에 의한 Prospect Park Volunteers는 공원 개선과 확충을 위한 미국에서 가장 큰 자원봉사 프로그램
 - 이 공원 조성을 위해 6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고, 이들은 연 3만 시간이 넘게 공원을 위해 봉사
 - 다양한 구성원 각자가 각기 자신에 맞는 임무를 맡아 수행한 것이 성공요인



자료 : http://www.brownstoner.com/brownstoner/archives/2008/02/a_new_look_for.php

[그림 18] Vanderbilt Playground의 놀이공간

III.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공원 개선 전략

어린이가 즐겁고 안전한 공간으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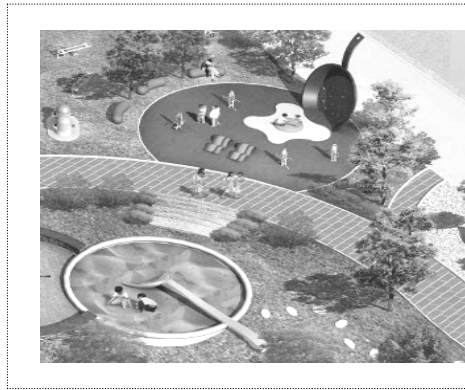
- 공원의 주 이용자층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흥미로운 공간으로 탈바꿈
 - 어린이의 참여를 통해 창의적인 놀이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어린이의 요구사항을 구체화하는 설계를 시도
 - 전문 설계업체 및 대학기관과 연계하여 주민과의 협의를 피드백을 통해 보완하고 아이디어를 현실화
 - 어린이뿐 아니라 여가활동을 공원에서 보내는 노인층 및 어린이 동반의 주부층을 위해 커뮤니티 활동공간 및 휴게시설을 보완
 -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리인력을 보충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
 - 부족한 자치구 관리인력을 보강하고 공원별 관리책임제를 실시하되, 주역주민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어린이 공원 지킴이를 선발하여 활용

□ 주요 추진전략

주요 정책	세부 추진내용
· 다양한 디자인 및 소재의 시설 도입	· 어린이들이 즐기는 소재로 디자인하여 흥미 고취 · 상상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주민참여설계 추진 · 위해성 없는 소재, 협동성 증진 시설 설치
·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 및 시설물 설치	· 어린이의 활동성을 고려한 공간 계획 · 어린이 동반자 및 노년층에 대한 시설 배려
· 주기적인 이용자 평가와 상시적인 관리체계 구축	· 노후도를 고려하여 수시 점검하되 개선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반영 · 공원 관리인력의 증원과 관리 책임 강화

다양한 디자인 및 소재의 시설 도입

- 어린이들이 즐기는 소재로 디자인하여 흥미 고취
 - 어린이공원의 특성상 즐겨찾는 놀이기구는 그네, 미끄럼틀, 시소와 같은 종래의 기본적인 놀이기구지만 다양한 디자인으로 설치하여 만족도를 극대화
 - 시설물 개선에 있어서는 어린이가 좋아할 만한 캐릭터와 동물을 소재로 하거나 색상을 도입하여 시설물을 교체
 - 어린이공원의 시설물을 통해 작은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느낌을 주도록 하여, 아이들의 정서 함양을 제고
 - 예를 들면, 공룡의 배속이나 재미있는 곤충 등의 형상을 주제로 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내부를 드나들며 생물에 대한 이해와 재미를 제공
 - 소리를 이용한 시설로 흥미를 고취하고, 가지고 놀며 음악적 재미 유발



[그림 19] 스푼 모양 미끄럼틀 시설
(대조 어린이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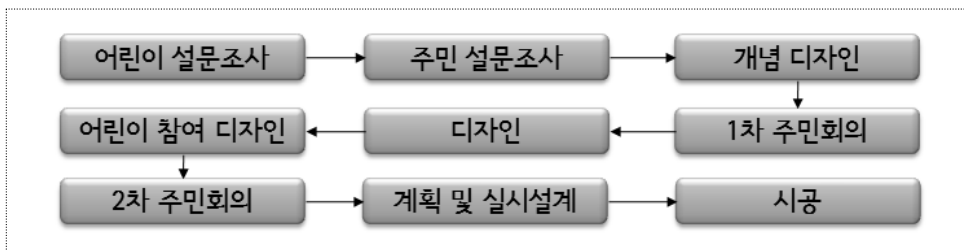


[그림 20] 소리놀이터 시설
(시흥시 삼미놀이터)

- 다양한 디자인 및 재질의 놀이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지원

어린이들의 의견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한 씨알 어린이공원

- 노원구 공릉3동에 소재한 씨알 어린이공원(991㎡)은 지은 지 15년 된 낡은 공원으로 당초 놀이기구는 녹슬고 동네의 통로구실만 한 채 방치
- 2008년 7월경 한국토지공사가 사업비(총 2억 원)를 지원하고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가 주관이 되어 설계하는 놀이터 리모델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성
- 어린이들로 어린이놀이터 평가단을 만들고 지역 주민과 함께 설계단계부터 직접 참여 방식으로 리모델링



[그림 21] 씨알 어린이공원 디자인 과정

- 씨알이라는 놀이터의 명칭에서 힌트를 얻어 '재크와 콩나무'를 형상화하여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높이를 통하여 극대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
- 콩나무 잎을 형상화하여 파고라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쉼터 제공



[그림 22] 어린이참여 프로그램과 완공된 씨알어린이공원 모습

□ 상상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주민참여형 설계 추진

- 즐겁게 놀면서 창의력을 기른다는 개념으로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회복
- 디자인워크숍, 주민설명회를 통해 어린이 및 주민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 과정에도 주민감독관 참여를 유도

- 관리방식도 기존의 시가 관리하던 방식에서 공원을 이용할 주민들과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여 계획·조성·관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
- 놀이기구의 형상화를 통해 놀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주민쉼터로 커뮤니티 활동을 증진
- 주민쉼터는 데크로 아이들과 함께 나온 주민들이 아이들을 관찰하며 쉴 수 있도록 디자인
- 운동기구는 커뮤니티 시설로써 주민들이 운동을 통하여 만나도록 계획

어린이의 창의성을 담은 서울시의 '상상어린이공원' 사업

- 서울시는 어린이들에게 외면 받아온 어린이공원 회복을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876억 8000만 원을 들여 시설이 낡고 오래된 300개의 어린이공원을 재조성 예정

<표 4>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항 목	내 용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공원 300개소 ('08년~09년 150개소, '10년 150개소) ◦ 대상공원의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84개소 중 10년 이상 된 어린이공원 - 어린이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 지역여건이 열악한 곳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패러다임의 유형별 시범모델 개발 후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위원회 구성,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전문가 설계현상공모 등 추진, 서울디자인본부, 서울문화재단 등과 협의 - 학교 특화수업으로 어린이와 토의하고 학부모를 초청하여 의견 개진 - 설계시 디자인워크숍 개최, 공사 시민고객감독관제도 등 시민참여 확대 ◦ 친환경적인 소재사용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래놀이터를 설치하고, 개회충과 중금속오염으로부터 안전 고려 - 주제를 부여하여 통일된 주제에 따른 공원 디자인



[그림 23] 호수이 어린이공원 조성 설계안

□ 위해성 없는 소재, 협동성 증진 시설 설치

- 시설물의 소재에 있어서는 무독성의 소재와 안전성이 갖춰진 것인지 설치 전에 충분히 검토
- 시설물을 서로 이용하겠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동하면서 놀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사회성을 증대
- 조경 및 휴양시설은 수 공간 개발과 사계절 모두 활용 가능하도록 조성
- 인위적인 휴게시설물(벤치, 파고라)보다는 나무그늘이나 잔디밭 등을 활용하여 휴식시설을 균형적으로 배치



출처 :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10310044>

[그림 24] 다양한 디자인 및 소재의 놀이기구 사례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 및 시설물 설치

□ 어린이의 활동성을 고려한 공간 계획

- 공원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서로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공원 전체의 배치물을 통일되게 디자인

- 공원의 편의성을 위하여 공원 내 화장실, 음수대 등과 같은 시설의 위생성과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수시로 점검
- 이용자의 연령층에 따라 다양한 놀이시설을 배치하고 조작이나 다른 놀이로 응용이 가능한 놀이시설을 설치
- 공원의 다양한 이용자층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공원 조성을 지양하고, 그들의 행태 특성을 고려한 어린이공원을 계획
- 시설의 이용연령대를 고려하여 이용연령을 표시하여 넣고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간결하고 귀엽게 표시



일본 미야자키 테마파크 놀이터의 '어린이용' 이라도 표시된 풋말

친근한 동물로 표시한 스트라스부르놀이터의 이용 연령 안내판

출처 :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10240076>

[그림 25] 도입시설의 연령 표시 사례

□ 어린이 동반자 및 노년층을 배려한 시설 보강할 필요

- 고령화에 따라 공원에서 여가활동을 보내는 노인을 위한 시설을 보강
- 노인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하도록 벤치나 정자 등의 휴게시설은 놀이공간 및 운동공간과 동선을 분리
- 노인정을 설치하거나 텃밭, 화단 등을 가꾸게 하는 등의 노인층을 위한 시설도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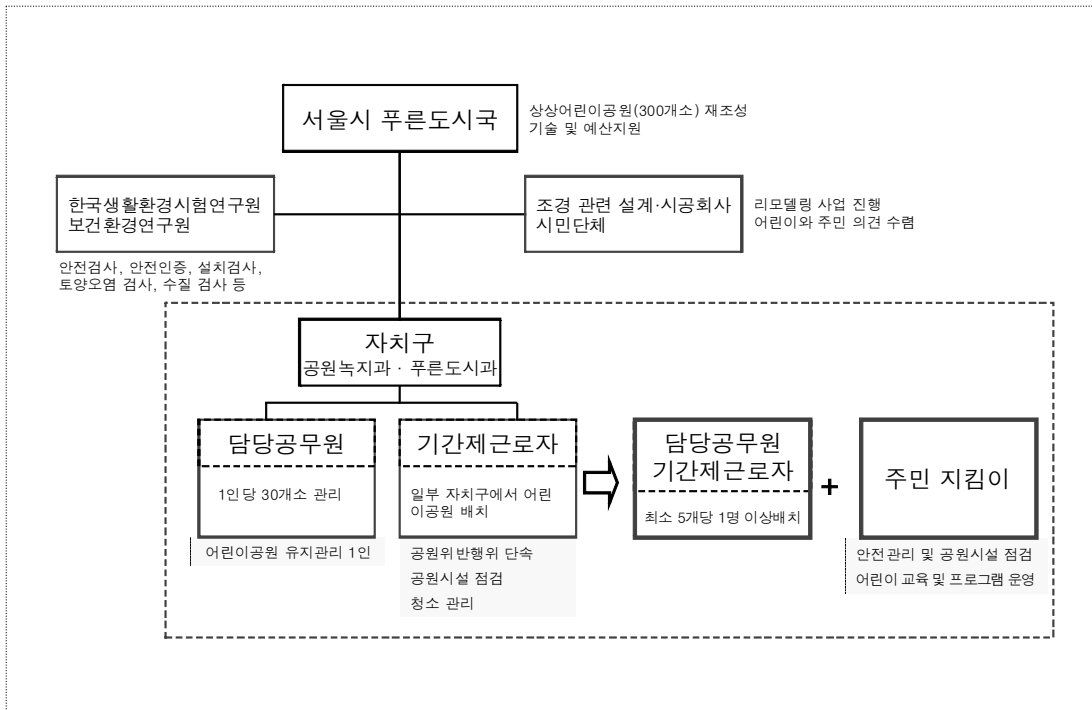
-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를 위해 적절한 휴식시설을 배치하되 임시로 설치·제거가 가능한 그늘막 등의 휴식시설을 설치
- 청소년층의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의 이용공간과 일반 이용자의 이용공간에 대한 동선체계 및 공간의 분리
- 어린이공원으로 명명되어 있으나 주변지역의 이용자층이 직장인을 비롯한 성인일 경우, 소공원으로 변경하고 이용자층에 맞는 시설로 교체
 - 1500㎡ 이하의 적은 규모의 공원은 소공원으로 변경하여 식재 위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
 - 지역특성상 직장인이 많이 이용하고, 어린이가 적은 곳은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위주의 공원으로 재디자인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유도

주기적인 이용자 평가와 상시적인 관리체계 구축

- 노후도를 고려하여 수시 점검하되 개선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반영
 - 어린이의 취향 변화와 시설물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4~5년을 주기로 시설물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반복할 필요
 -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놀이시설 사용법 및 주의사항을 눈에 잘 띄게 표시하되, 어린이가 이해하기 좋은 문구 및 그림 등으로 제시
 - 공원 관리자에 대한 연락처 및 안내 설명을 달아서 문의사항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할 때 연락처로 대비
 - 시설 측면에서는 벤치 개선, 놀이시설 수리 및 추가, 화장실 설치, 바닥포장 및 야간조명 개선, 운동기구 추가 등을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
 - 이용·관리측면에서는 공원의 청소 및 조경시설 관리, 공원 내 불량배, 취객, 노숙자 관리를 철저히 실행

□ 공원 관리인력의 증원과 관리 책임 강화

- 어린이공원의 계획과 관리 주체를 체계화하고 인력을 증원
 - 담당 공무원이 짧은 기간에도 교체되고, 담당 대상지가 많아 관리가 부실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관리책임제를 강화
 - 현재 담당공무원 1~2명이 수십 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자치구별로 담당자를 증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최소 5개소당 1명 이상 배치
 - 놀이터 주변의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근 노년층이나 주부를 모집하여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관리체계 구축
 - 이용수칙을 부착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숙지토록 하며 관리자 연락처를 명시하여 유사시 연락망 체계를 구축



[그림 26] 어린이공원 관리체계 개선

- 자치구 차원의 공원관리 규정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
 - 안전검사·안전인증 등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토양 및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나, 자치구에서도 월 1회 이상 안전점검과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 실시
 - 어린이 놀이시설 각각에 대한 전문적인 수리기술을 가진 정비반이 수시로 순찰을 통해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김원주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160

wjkim@sdi.re.kr